

성인 문해교육 연구의 담론 지형*

허 준(영남대학교 부교수)†

이경민(영남대학교 석사과정)

이진희(영남대학교 박사과정)

요 약

‘문해’는 사회적·역사적·문화적 개념으로 더 이상 평생교육학의 독점적 개념이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성인 문해교육 연구의 지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의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주제들이 갖는 구조적 특성, 구조적 위상의 변화, 그리고 주요 관련 용어들(문해, 문식성, 리터러시 등)을 중심으로 한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4개의 학술 정보 사이트에서 논문과 저자가 등록한 주제어를 수집하여, 300편의 논문에서 추출한 주제어 167개를 대상으로 전체 연결망 구조와 연결망의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문해 관련 주요 용어의 자아중심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인 문해교육 연구는 다양한 문해 실천들과 연결된 하나의 복잡한 담론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 담론 체계는 고유한 문해 실천들과 연결된 하위 담론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관련 하위 담론들 사이의 역학관계 속에서 여전히 분화 중인 역동적 체계였다. 이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문해교육 연구 영역의 확장, 메타 수준의 연구 수행, 기존 연구 영역의 심화, 비판적 담론의 확장 등 평생교육 관점에서 필요한 성인 문해교육 연구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문해, 성인 문해교육, 평생교육, 의미연결망분석

I. 문제제기

‘문해’(文解, literacy)는 사회적·역사적·문화적 개념이다(Barton & Hamilton, 2000; Freire, 1970; Freire & Macedo, 2014; Street, 2003, 2006). 즉 문해의 의미는 문해 실천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문해’를 의미하는 영어 ‘literacy’는 라틴어 ‘literatus’에서 파생되었는데, 고대에는 ‘문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세에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종교 개혁 이후에는 ‘모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었다(윤준채, 2009: 6). 또한 문자시대의 문해는 읽기와 쓰기를 의미하지만, 정보화시대

* 이 연구는 2016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제1저자: 허준(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joonh@yu.ac.kr)

의 문해는 전자적 글쓰기 등, 현대사회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또 다른 학습 요구들을 포함한다(손준중, 2000). 따라서 문해는 선형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문화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구성적 개념이다(Bartlett, 2008: 737).

문해 개념의 이런 특징은 문해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의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1950년대 UNESCO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문해적 관점에서 문해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최근 UNESCO는 문해를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합적 문해 능력으로 보고, 문해가 쓰기와 읽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과 관계, 지식, 언어, 문화 등에 대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UNESCO, 2003). OECD는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 등 보다 폭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능과 연결시킨 문해력 측정을 시도하고 있다(OECD, 2013).

우리나라의 문해교육 정책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1950년대 ‘전국문맹퇴치운동’에서 비문해의 기준은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기초문해(basic literacy) 수준이었다(오혁진·허준, 2011). 평생교육법에서 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평생교육법 2조 3항)으로 규정되어 생활기능문해(functional literacy)의 의미를 갖는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해의 의미와 수준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문화문해, 가족문해, 정보문해, 금융문해 등 새로운 문해 영역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양명희, 2013; Euringer, Buddeberg & Grotluschen, 2016), 전통적으로 평생교육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실천적·학술적 관심도 한국어교육, 미디어교육, 정보화교육, 미술교육, 무용교육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김양은, 2005; 변종임·이경아, 2006; 안인기, 2014; 옥현진, 2013; 채향순, 2015). 한편 성인 문해교육의 확장과 함께 용어의 한국적 변용도 이루어지고 있다. 평생교육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해’ 외에 ‘literacy’의 번역어로 ‘문식성’, ‘리터러시’, ‘소양’ 등의 용어도 쓰이고 있다.

평생교육학 연구에서 성인 문해교육 관련 용어의 다양성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할까? 기존의 연구가 성인 문해교육의 다양성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문해교육 연구 동향을 다룬 기존의 연구의 경우 전통적인 평생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 영역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곽삼근·박세영, 2016; 오세정, 2015). 한국어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연구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옥현진, 2013). 이러한 접근들로는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관련 연구 지형을 구조적으로 조망하기 쉽지 않다. 평생교육학적 관점에서 문해교육에 대한 연구는 의미 복합체이자 사회문화적 개념으로서

문해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이지혜, 2003; 한승희, 1997). 또한 기존의 저학력 성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해 요구를 갖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장애인 등 다중(多衆)적 학습자군의 요구를 포함할 필요도 있다(허준, 2008).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인 문해교육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제 영역에 대한 평생교육학적 조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성인 문해교육 연구에 대한 이러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평생교육학의 영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관련 연구의 지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인 문해교육 연구 동향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담론들의 관계성을 파악함으로써 성인 문해교육 연구의 구조적 지형을 분석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서 개념군의 구조와 개념사이의 관계 분석에 적합한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해교육 연구 담론들이 각각의 문해 사태(literacy events)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때(Street, 2006), 관련 연구물들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성인 문해교육 연구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실천들과 학술 담론들을 조망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문해교육 연구 주제들의 구조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성인 문해교육 연구 중심 주제어들의 구조적 위상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셋째, 성인 문해교육 주요 용어들을 중심으로 한 담론들의 구조적 특성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검토

1. 성인 문해교육 연구와 문해 담론들

문해(literacy)를 고정되거나 선형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맥락성을 고려한 일종의 담론(discourses)으로 간주하는 접근이 198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해졌다(Capstick, 2016). 이런 일련의 경향을 ‘신문해연구’(New Literacy Studies)라고 하는데, 신문해연구는 UNESCO와 OECD 문해 담론의 탈맥락성과 발전주의적 시각을 지양하고, 문해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관심을 갖는다(Street, 2003). 이에 대해 Street(2003)는 문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 ‘문해 사태’(literacy event)와 ‘문해 실천’(literacy practice)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문해 사태’란 문해교육 참여자의 상호작용과 해석 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미하며, ‘문해 실천’은 사회적 실천으로서 문해과정에 참여하고 이런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렇게 문해를 이해했을 때, 삶의 영역마다 존재하는 문해 실천들 사이의 역학 관계를 발견할 수 있으며(Barton & Hamilton, 2000), 문해의 기술적이고 중립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이자 다양한 양식의 의사소통 형태인 문해 실천들을 검토할 수 있다(Duckworth & Tett, 2016).

‘문해 사태’와 ‘문해 실천’의 관계에 주목하면 성인 문해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온라인 공간의 탄생은 전자적 글쓰기와 글읽기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문해와 컴퓨터문해에 대한 요구를 촉발한다(손준중, 2000).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영상언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영상언어를 습득하고 영상언어의 문법 구조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해독할 수 있는 미디어문해와 시각문해도 중요해진다(Sholle & Denski, 1993). 현대사회의 정치·경제 환경은 정치·경제 언어의 습득과 정치·경제적 상징체계들에 대한 정치문해와 경제문해를 요구한다(Euringer, Buddeberg & Grotlüschen, 2016). 현대사회에 들어 다양한 상징체계들의 등장으로 ‘문해 실천’들도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literacy’에 대한 다양한 번역어가 등장하면서 이런 복잡성이 가중되었다. 국내 학술 연구에서 ‘literacy’에 대한 번역어는 ‘문해’, ‘리터러시’, ‘문식성’, ‘활용능력’, ‘소양’, ‘이해력’ 등이다. 평생교육(이전의 사회교육)에서는 1960년대부터 ‘문맹’(文盲)이라는 개념 대신에 ‘문해’, ‘비문해’라는 개념을 쓰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최윤정, 2003). 이때 문해라는 개념은 글자에 대한 단순 습득을 의미하는 기초문해,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생활기능문해, 사회비판과 사회변혁의 의미를 포함하는 비판문해(critical literacy)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신미식, 2010). 적용 범위 또한 전통적인 글읽기와 글쓰기 등의 문자학습뿐만 아니라 정보문해, 미디어문해, 금융문해 등 매우 포괄적이다(손준중, 2000; 양명희 2013). 1980년대 말 부터는 미디어교육 등의 영역에서 ‘미디어리터러시’ 등 ‘literacy’를 그대로 사용하는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김수영, 1987). 리터러시는 실천 영역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는데 일반적으로 앞서 살펴본 ‘문해’ 담론의 의미 영역과 중첩되고 있다. 예컨대, ‘미디어리터러시’는 미디어 언어에 대한 기초적 이해, 활용, 비판적 이해를(김양은, 2005), 그리고 ‘댄스리터러시’는 무용에 대한 기본 이해와 소양(채향순, 2015)을 의미한다. 1990년대를 전후로 하여 ‘literacy’에 대한 번역어로 ‘문식성’(文識性)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주로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의 읽기와 쓰기와 관련된 능력을 의미한다(윤준채, 2009; 이천희, 1991). 이밖에 1990년대 말 이후 정보활용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영역 등에서 ‘literacy’를 ‘활용능력’, ‘소양’, ‘이해력’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연구가 등장하였으며, 이 용어들은 주로 기초

능력, 기본 소양 등의 의미를 지닌다(김상규, 2008; 박진희·장남기, 1998; 이정연·정동렬, 2005).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문해 담론은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성인 문해교육의 개념 및 관련 연구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문해 실천의 확장과 분화 양상을 반영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전통적인 저학력 성인 대상의 문해교육에 집중하거나(곽삼근·박세영, 2016; 오세정, 2015) 정보문해 등 일부 영역을 포함한 문해교육 연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옥현진, 2013). 또한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 학술연구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별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오세정, 2015; 옥현진, 2013) 문해 담론이 갖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

2.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의미연결망분석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연구의 한 방법으로, 단어들로 구성된 연결망 구조에서 패턴을 해석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관계 분석의 한 방법이다(Krippendorff, 2004). 내용분석 연구는 개념 자체에 관심을 갖는 개념분석과 개념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관계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김석우·최태진, 2011), 평생교육학 분야에서는 주로 개념분석을 활용한 연구동향 분석이 이루어졌다(곽삼근·박현우·김현주 2014; 김영석, 2012; 김진화·고영화·성수현, 2007; 이지연, 2015; 최은수·김성길·허영숙·박진홍, 2009).

개념분석은 독립적인 개념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개념 변화의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나 개념 관계 변화, 영향력 등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김석우·최태진, 2011). 한편 의미연결망분석은 텍스트 사이의 관계와 이 관계에서 생성되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특정 단어의 구조적 위치와 연결망 구조의 형태에 중점을 둔다(Wasserman & Faust, 1994). 최근, 평생교육학을 비롯한 교육학 분야에서도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해 의미연결망분석을 활용하고 있는데, 연구 패러다임의 구성요소와 변화, 연구 사이의 관계성 등을 밝히는데 기여하고 있다(강정배, 2015; 권현범·천세영, 2013; 김상아·강정배·변찬석, 2015; 김영환·강두봉·정주훈, 2015; 이유나·김춘화·이상수, 2016; 정승환·호예담·송영수, 2014; 현영섭, 2011).

의미연결망분석에서 연구 주제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이다. 연결중심성은 특정 노드(node)가 다른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한 노드가 전체 연결망에서 어느 정도 중심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 집단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 효과적이다(박지영·김태호·박한우, 2013; 유병국·김순

홍, 2013). 이런 연결중심성은 각 노드에 연결된 연결선의 개수로 측정되며 연결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다른 단어들과 함께 자주 등장한다는 점에서 연결망 내의 중심 역할로 간주된다. 연결중심성은 연구의 변화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지만, 집단이 방대한 경우 개체 각각이 맺고 있는 관계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다(곽기영, 2014; 최상윤, 2011).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지정하는 특정 주제의 관계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아중심 연결망(ego centric network) 분석이 함께 활용되고 있다. 자아중심연결망이란 하나 또는 몇 개의 자아(ego) 노드들과 직접 연결을 맺고 있는 노드들과의 연결선만으로 구성된 연결망으로(곽기영, 2014; 정승환·호예담·송영수, 2014), 주제 중심의 관계망을 탐색하는데 효과적이다(DeJordy & Halgin, 2008). 성인 문해교육 연구의 담론 지형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구조와 유사 담론들의 구조 분석이 이루어져야하므로 연결중심성분석과 자아중심연결망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성인 문해교육 연구의 담론 지형을 의미연결망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본 연구에서는 해당 논문의 주제어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성인 문해교육 연구 전체를 분석하기 위하여, 논문 검색 시에 학술지의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분석을 위한 논문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교보문고, KISS, DBPIA에 ‘문해’, ‘문해력’, ‘비문해’, ‘문맹’, ‘문식성’, ‘문식력’, ‘리터러시’, ‘literacy’, ‘한글교육’으로 검색된 국내 학술 논문 중 선정하였다. 논문 발행기간은 성인 문해교육 관련 논문이 처음 검색된 시기인 1964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한을 두었다. 논문 수집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학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4,360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이 중 중복 수집된 논문과 논문 제목에서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논문을 제외하여 1차적으로 401편의 논문을 얻었다. 이 401편의 논문 중에서 연구대상을 성인으로 특정하지 않았거나 교육활동과 무관한 논문 83편의 초록과 내용을 집중 검토하였다. 이 중에서 일반 이론 및 방법론과 관련된 논문 26편을 제외한 57편의 논문을 선별하여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거하였다. 또한 학술DB와 논문 원문에서 주제어를 확인할 수 없는 논문 44편을 추가로 제거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300편

의 논문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중 인문학 분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62편으로 제일 많았으며, 사회과학/정보/미디어 분야 학회지 논문이 54편, 일반교육학 분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43편, 한국어·국어교육 분야 학회지 논문이 30편, 평생교육학 분야 학회지 논문이 26편이었다. 최근 10년(2006~2015) 논문이 258편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성인 문해교육 관련 연구가 최근 10년 동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학술지 분야별 분석 논문 편수

학술지분야	1964~2005년	2006~2015년	계
평생교육학	2	24	26
일반교육학	11	32	43
(한)국어교육	6	24	30
특수교육/교과교육	2	13	15
인문학(어문, 역사 등)	6	56	62
사회과학/정보/미디어	6	48	54
경제금융	0	11	11
의학/보건	2	11	13
문화예술	1	24	25
기타	6	15	17
계	42	258	300

2. 자료 수집 절차

자료 수집은 주제어 수집과 정제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논문인 300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학술정보 DB에 저자가 등록한 주제어와 논문 원문을 확인하여 총 1,211개의 주제어를 얻었다. 중복된 주제어를 제외하면 총 655개였다. 이후 주제어의 균질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딩에 참여한 연구자 간 정제 기준을 설정하였고 3명의 연구자가 주제어 수집 및 정제 작업을 각자 수행하다. 이후 반복적인 수정과 합의 과정을 거쳐 주제어를 확정하였다.

주제어 정제 기준과 내용을 보면, 첫째 연구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삭제하였다. 연구방법을 뜻하는 주제어인 ‘n-검정’, ‘개념분석’, ‘내용분석’, ‘텔파이조사’ 등과 고유명사나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노동자 움직임’, ‘김광균’, ‘토이스토리’ 등의 주제어는 삭제하였다. 그러나 주제어로 자주 등장한 ‘프레이리’는 제거하지 않았다. 둘째, ‘정보 시스템 관련 교육의 정도’와 ‘예방을 위한 건강 서비스 사용’ 등 불필요하게 길거나 수식어가 있는 주제어의 경우 삭제하였으며, 유사 주제어는 상위 개념으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호하는 기본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자들이 지각하는 범주에 대한 절충된 합의를 거쳐

‘멀티미디어리터러시’는 ‘미디어리터러시’로, ‘제한된 합리성’은 ‘합리성’으로, ‘중급 학습자’, ‘문해 학습자’는 ‘학습자’ 등으로 바꾸었다. 셋째 연결망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주제어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하거나 정확한 명칭으로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장애성인’은 ‘장애인’으로 변경하였다. ‘성인문해지원사업’의 경우 정확한 명칭인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수정하였다. 넷째, 여러 개념을 포함한 주제어는 분할하였다. ‘인권과 문해’는 ‘인권’과 ‘문해’, ‘해독과 분석문식력’은 ‘해독’과 ‘분석문식력’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영어 주제어는 번역하거나 영어 발음을 그대로 옮겨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literacy’는 ‘리터러시’, ‘computational literacy’는 ‘컴퓨터리터러시’로 변경하였다 (<표 2> 참조).

<표 2> 주제어 정제 기준

판단근거	정제 대상	방법	예시
연구 목적에 위배	연구방법	삭제	· t-검정, 개념분석, 내용분석, 요구분석 등
	고유명사 또는 특정 대상 지칭		· 눈동자 움직임, 김광균, 김유정, 토이스토리, 포토포엠,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등 (‘플레이리’는 예외)
노드 통일	불필요하게 길거나 수식어가 있는 주제어	삭제	· 정보 시스템 관련 교육의 정도 등
		상위 범주에 포함	· 멀티미디어리터러시 → 미디어리터러시 · 제한된 합리성 → 합리성 · 인쇄매체광고텍스트 → 텍스트 · 중급 학습자, 문해 학습자 → 학습자 ·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 도서관 · 성인문식성, 성인문해교육 → 문식성, 문해교육
	유사한 개념의 주제어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	· 여성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 결혼이주여성 · 장애성인 → 장애인 등
		명칭 수정	· 성인문해지원사업 →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여러 개념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 주제어	분할	· 인권과 문해 → 인권, 문해 · 자원·기술·정보활용능력 → 자원활용능력, 기술활용능력, 정보활용능력 · 해독과 분석문식력 → 해독, 분석문식력
한영변환이 필요한 주제어	통일	· literacy → 리터러시 · computational literacy → 컴퓨터리터러시 · 헬스리터러시 → 건리터러시 등	

3. 분석 방법 및 절차

의미연결망분석에서 핵심 단어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빈도는 ‘관계’가 된다(박한우·Leydesdorff, 2004).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주제가 함께 등장하는 빈도를 ‘관계’로 보고, 성인 문해교육 연구의 담론 지형을 분석하였다. 여기에 의미연결망분석의 지표로 연결중심성과 자아중심연결망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별 분석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문해교육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연결망의 연결중심성과 연결망 구조를 분석하였다. 모든 주제어를 대상으로 연결망 지도를 구축하면 노드의 수가 너무 많아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거시적인 담론 지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655개의 주제어 중에서 2회 이상 출현한 167개의 주제어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체 연결망에서는 주제어의 구조적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핵심 연구 주제들이 주로 어떤 연구와 연관성을 띠는지 자세히 파악하기 어렵다. 활발한 노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상위 노드 비율과 개수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위 20%의 중심성(김경미·홍성호·안유정·송미경·이만형, 2011; Oktay, Balkir, Foster & Jensen, 2011)에 해당하는 연결중심성 0.1 이상의 주제어를 중심 주제어로 보고 이 주제어들의 관계 구조와 연결 정도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 연결망의 노드는 논문의 주제어를 의미하며 노드를 잇는 연결선(link)은 주제어 간 동시출현(co-occurrence) 빈도를 나타낸다. 노드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연결선의 굵기를 통해 주제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연결중심성이 클수록 노드가 크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들은 다양한 주제어들과 고루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망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주제어 사이의 동시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연결선이 굵다.

둘째, 성인 문해교육 연구 중심 주제어들의 구조적 위상 변화를 분석하였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 시작된 2006년을 우리나라 문해교육 담론 확장의 기점(허준, 2008)으로 판단하여, 최초 연구물이 검색된 시기인 1964년부터 2005년까지와 최근 10년인 2006년부터 2015년까지로 시기 구분을 하였다. 상위 20% 주제어들의 관계 행렬을 두 시기로 나누어 생성하여 연결중심성, 연결망의 구조, 연결선의 굵기를 지표로 삼아 각 시기를 분석하였다.

셋째, 문해 관련 주요 용어들을 중심으로 ‘자아중심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해와 관련된 주요 용어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평생교육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 ‘문해’와 한국어교육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식성’, 그리고 미디어교육, 정보활용교육, 무용교육, 경제교육 등에서 ‘literacy’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리터러시’, ‘활용능력’, ‘소양’, ‘이해력’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2회 이상 출현한 167개의 주제어를 대상으로 각 자아 그룹의 관계를 시각화하였다. 자아 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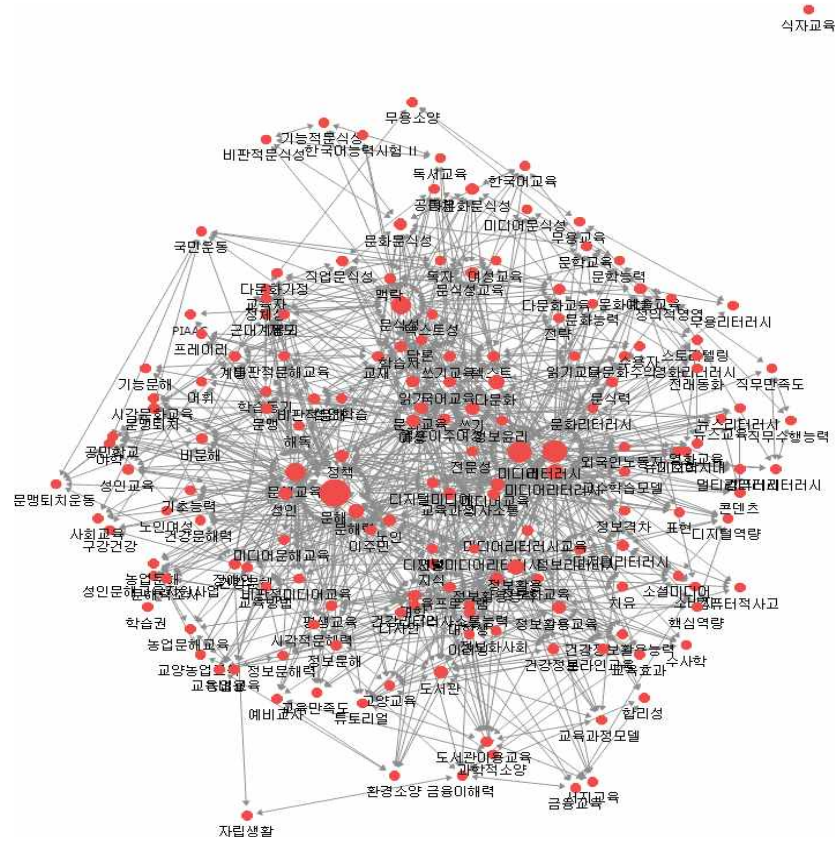
가 가지는 크기(size) 값은 자아 노드 외의 노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횟수를 의미한다. 이 값을 통해 주요 용어가 어떤 단어와 주로 결합되어 쓰이는지, 그리고 이런 결합된 용어가 연결망 내에서 얼마나 사용되는지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자아 텍스트와 연결된 노드가 많을수록 해당 자아 노드가 집단 내에 밀접하게 자리 잡은 것이라 볼 수 있다(이수상, 2012). 또한 주제 간의 관련 정도는 연결선의 굵기로 판단하며, 연결선이 굵을수록 빈번하게 동시출현한 주제어이며 서로 연관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와 주제어 사이의 관계 행렬을 만드는 데에는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 프로그램(박한우·Leydesdorff, 2004)의 하부 프로그램인 KrWords와 KrTitle을 활용하였으며 연결망 시각화를 위해서는 Netminer 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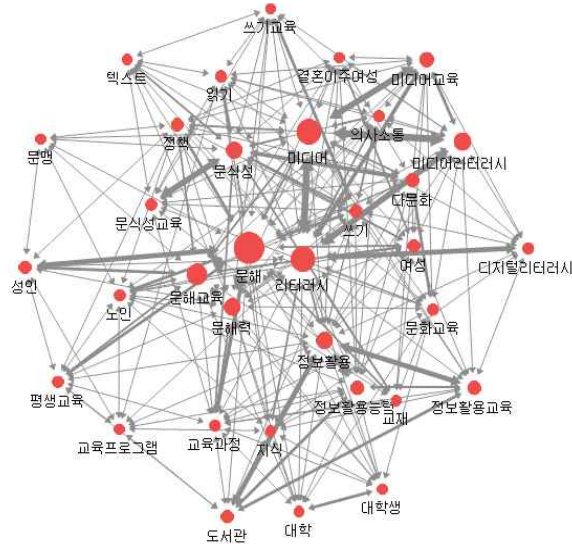
1. 전체 의미연결망

전체 의미연결망은 167개의 노드, 2,892개의 연결선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문해’, ‘리터러시’, ‘문해교육’, ‘문식성’ 등의 주제어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식자교육’을 제외한 모든 주제어가 타 주제어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단어 중 ‘문해’, ‘문식성’, ‘미디어’, ‘정보활용’은 가장자리에 위치한 주제어들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연결망의 왼쪽 주제어들은 ‘문해’와, 위쪽 주제어들은 ‘문식성’과, 오른쪽 주제어들은 ‘리터러시’와, 아래쪽은 ‘정보활용’을 중심으로 연결된다([그림 1] 참조). 이는 전체 의미연결망이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들을 매개로 하여 거시적인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전체 의미연결망

상위 20%의 노드를 제시한 결과, ‘문해’(0.554), ‘리터러시’(0.530), ‘문식성’(0.301) 등 문해 관련 용어가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였고, ‘미디어’(0.361), ‘미디어리터러시’(0.253), ‘정보활용’(0.246), ‘쓰기’(0.216), ‘여성’(0.204) 등이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였다. 동시출현 빈도를 보면, ‘문해’는 ‘성인’, ‘노인’, ‘평생교육’ 등과, ‘문식성’은 ‘읽기’, ‘다문화’, ‘쓰기’ 등과, ‘리터러시’는 ‘미디어’, ‘미디어교육’, ‘미디어리터러시’ 등과 동시출현 빈도가 높았다. ‘미디어’를 포함한 주제어는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정책’ 등과, ‘정보활용’을 포함한 주제어는 ‘교재’, ‘도서관’, ‘대학’ 등과, ‘평생교육’은 ‘성인’, ‘정책’, ‘노인’ 등과, 그리고 ‘여성’은 ‘다문화’와 ‘리터러시’, ‘쓰기’ 등과 동시출현 빈도로 높았다([그림 2], <표 3> 참조). 이 결과는 문해 관련 주요 용어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문해’를 중심의 노인 평생교육, ‘문식성’의 읽기·쓰기 교육, ‘리터러시’ 중심의 미디어교육과 다문화교육, ‘정보활용’ 중심의 도서관교육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상위 20% 주제어의 의미연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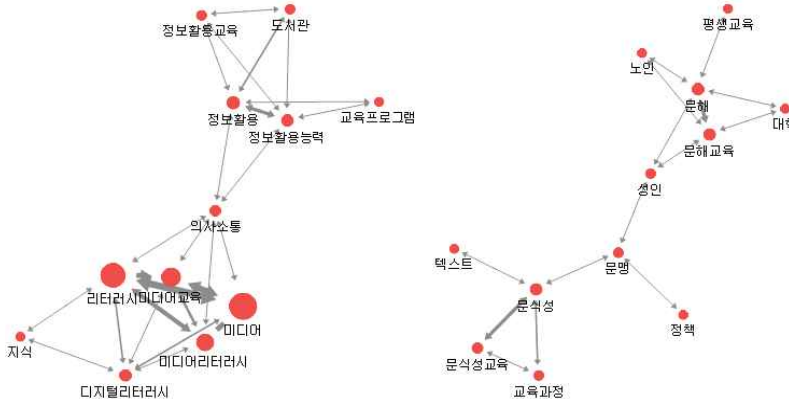
<표 3> 연결중심성 상위 20% 주제어

순위	단어	연결 중심성	순위	단어	연결 중심성	순위	단어	연결 중심성
1	문해	0.554	12	미디어교육	0.192	22	정보활용교육	0.138
2	리터러시	0.530	14	다문화	0.174	26	대학생	0.132
3	미디어	0.361	15	대학	0.168		디지털리터러시	0.132
4	문해교육	0.343	16	정책	0.156	28	결혼이주여성	0.126
5	문식성	0.301	17	의사소통	0.150		평생교육	0.126
6	문해력	0.289		노인	0.150		문식성교육	0.126
7	미디어리터러시	0.253	19	성인	0.144	32	교재	0.126
8	정보활용	0.246		문화교육	0.144		문맹	0.120
9	쓰기	0.216	22	읽기	0.144	33	도서관	0.114
10	여성	0.204		지식	0.138		교육프로그램	0.114
11	정보활용능력	0.198		쓰기교육	0.138			
12	교육과정	0.192		텍스트	0.138			

2. 의미연결망의 시기별 변화

연결중심성 상위 20% 주제어의 시기별 구조적 위상의 변화를 보면, 전기(1964~2005년)

에는 주제어 ‘문식성’, ‘문해’, ‘리터러시’, ‘정보활용’을 중심으로 연결망이 형성되었다. 가장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인 ‘의사소통’과 ‘리터러시’ 크기는 0.181로, 모든 주제어가 비교적 낮은 연결중심성을 보였다. ‘문해’와 ‘문식성’을 중심으로 한 주제어 집단과 ‘리터러시’와 ‘정보활용’이 중심이 되는 주제어 집단 간에는 매개 역할을 하는 주제어가 존재하지 않아 각 주제어 집단이 단절되어 있다. 한편 군집 안에서 ‘문해’는 ‘노인’, ‘대학’, ‘성인’ 등의 연결 중심으로 나타나며, ‘문식성’은 ‘교육과정’과 ‘텍스트’, ‘문맹’ 등과 연결된다. ‘리터러시’는 ‘미디어’와 관련된 주제어와 ‘디지털리터러시’, ‘지식’, ‘의사소통’과 연결된다. 또한 주제어 ‘성인’, ‘문맹’, ‘의사소통’은 연결망 사이의 연결점으로서 위치한다([그림 3], <표 4> 참조). 이는 읽기 쓰기를 중심으로 한 문해 및 문식성에 대한 연구와 정보활용교육, 미디어교육 등과 관련된 연구가 서로 연계성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 전기(1964~2005년) 의미연결망

<표 4> 전기(1964~2005년) 연결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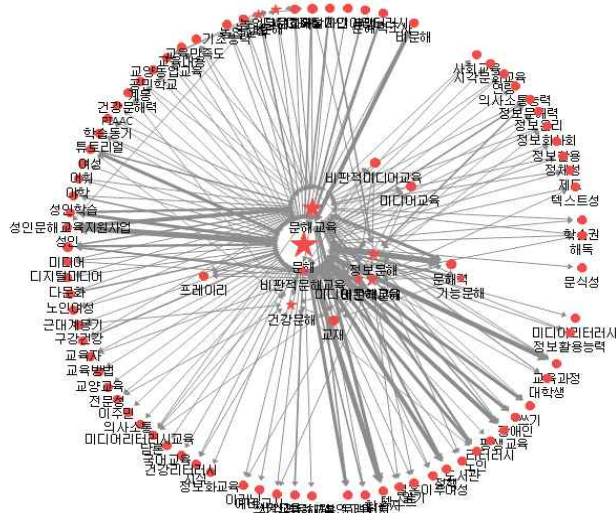
순위	단어	연결 중심성	순위	단어	연결 중심성	순위	단어	연결 중심성	
1	의사소통	0.181	3	문해	0.151	16	문식성교육	0.060	
	리터러시	0.181		문식성	0.121		지식	0.060	
3	디지털리터러시	0.151	10	문해교육	0.121		노인	0.060	
	미디어교육	0.151		도서관	0.090		대학	0.060	
	정보활용능력	0.151		12	문맹		0.090	교육과정	0.060
	정보활용	0.151			정보활용교육		0.090	평생교육	0.030
	미디어리터러시	0.151			22	성인	0.090	텍스트	0.030
미디어	0.151	교육프로그램	0.060	정책		0.030			

최근 10년(2006~2015년) 주제어들의 의미연결망을 보면, 주제어들 사이의 연결선의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연결중심성과 연결망 구조를 보면, 주제어 ‘문해’의 연결중심성이 0.878로 가장 높았으며, ‘리터러시’(0.818), ‘미디어’(0.666), ‘정보활용’(0.575), ‘문해력’(0.575), ‘쓰

3. 주요 용어들의 ‘자아중심연결망’ (ego centric network)

가. ‘문해’ 중심연결망

‘문해’는 그 자체로 노드이면서 ‘교육’, ‘정보’, ‘비판적’, ‘건강’, ‘미디어’ 등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다. ‘문해’ 중심연결망의 크기 값은 ‘문해’(92), ‘문해교육’(57), ‘정보문해’(17), ‘비판적문해’(16) 순으로 나타났다. ‘문해’는 총 92개의 다른 주제어와 높은 수준의 연결을 맺고 있었는데, 전체 노드의 61%가 ‘문해’와 직접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문해교육’, ‘정보문해’, ‘건강문해’ 등, 각각의 문해 영역들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적어 연결망 지도에서 가장자리의 밀집도가 중간 지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아중심연결망 크기가 큰 주제어 별로 살펴보면, ‘문해’는 ‘성인’,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여성’ 등과 상대적으로 높은 동시출현 빈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문해교육’은 ‘성인’, ‘문해력’,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등과 상대적으로 높은 동시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이밖에 ‘문해력조사’, ‘프레이리’, ‘담론’ 등과 연결되었다. ‘정보문해’는 ‘디자인’, ‘정보문해력’, ‘대학생’ 등과 상대적으로 높은 동시출현 빈도를 보였고, ‘정보활용’,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과의 연결되었다. ‘비판적문해’는 ‘쓰기’, ‘문해력’, ‘프레이리’와의 동시출현 빈도가 높았고, ‘텍스트’, ‘읽기’, ‘담론’ 등과 연결되었다(그림 5, <표 6> 참조). 이는 ‘문해’ 용어가 문해교육, 정보, 디자인, 정책, 보건 등 다양한 연구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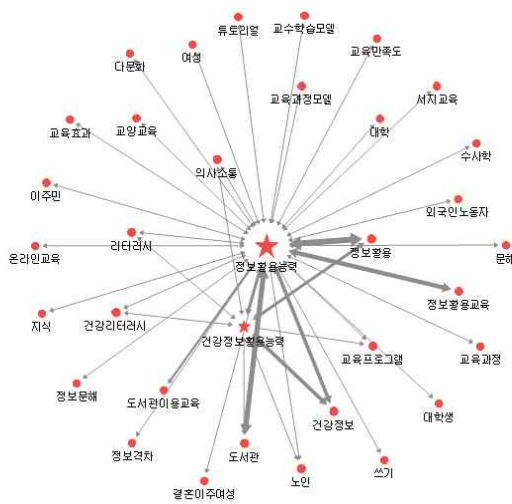


[그림 5] ‘문해’ 중심연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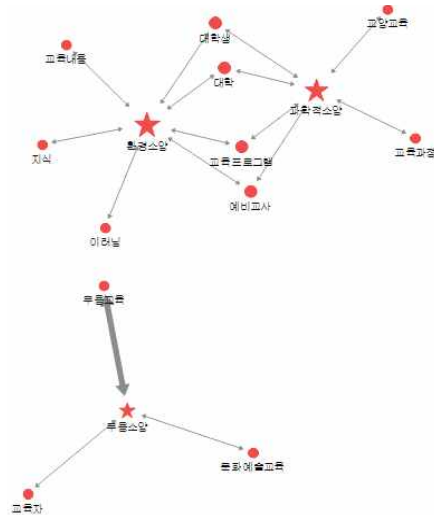
<표 6> ‘문해’ 연결정도

자아(ego) 주제어	크기
문해	92
문해교육	57
정보문해	17
비판적문해	16
건강문해	9
비판적문해교육	8
미디어문해교육	8
농업문해	7
농업문해교육	6
기능문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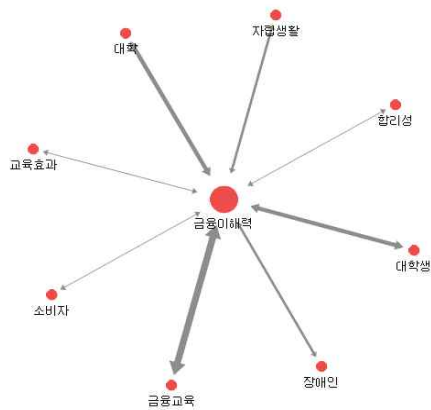
매개로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었고, ‘무용소양’은 ‘무용교육’, ‘문화예술교육’, ‘교육자’와 연결되어 독립적인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해력’ 중심연결망은 ‘금융이해력’을 중심으로 ‘금융교육’, ‘대학’, ‘대학생’과 상대적으로 높은 동시출현 빈도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밖에 ‘장애인’과 ‘자립생활’ 등과도 연결되어 있었다([그림 8~10], <표 9> 참조). 이는 ‘문해’, ‘리터러시’, ‘문식성’과는 달리 이 용어들은 활용도가 높지 않으며, 특정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8] ‘활용능력’ 중심연결망



[그림 9] ‘소양’ 중심연결망



[그림 10] ‘이해력’ 중심연결망

<표 9> 기타 주제어 연결정도

자아(ego) 주제어		크기
정보활용	정보활용능력	33
	건강정보활용능력	9
소양	환경소양	7
	과학적소양	6
	무용소양	3
이해력	금융이해력	8

V. 논의 및 결론

문자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인간 소통을 매개하는 상징과 기호들도 중요한 성인 문해교육의 대상이 된다(Sholle & Denski, 1993). 본 연구는 성인 문해교육 연구를 ‘문해’라고 기표화된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동일한 의미를 공유하는 제 영역들에 집중하여 관련 연구의 구조적 지형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논의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인 문해교육 연구의 주제어들 사이에 나타난 전체 의미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첫째, 성인 문해교육 연구들은 현재 ‘하나의’ 담론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평생교육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문해’ 뿐만 아니라, 관련 번역어, 특히 ‘문식성’과 ‘리터러시’가 성인 문해교육 연구 담론 체계의 중심 노드로 등장한다. 성인 문해교육 연구들이 ‘문해’, ‘문식성’, ‘리터러시’ 등 주요 용어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의 담론 체계를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연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는 이론적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성인 문해교육 연구가 전통적인 문자 문해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교육, 정보활용교육 등의 영역이 성인 문해교육 연구 담론 체계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문해’, ‘문식성’, ‘리터러시’를 중심건로 다문화, 정보, 미디어, 보건 등의 영역이 접속하고 있다. 이는 문자 읽기와 쓰기 중심의 연구 및 실천 지형을 보여준 기존 연구와는 달리(곽삼근·박세영, 2016; 오세정, 2015; 옥현진, 2013), 성인 문해교육 연구가 다양한 영역의 문해 실천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성인 문해교육 연구의 중심 주제어들의 구조적 위상의 변화를 보면 첫째, 최근 성인 문해교육 연구의 상호 연결성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호 연결성의 증가는 최근 10년 동안 이루어진 성인 문해교육 연구의 양적 증가를 보여준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한편(오세정, 2015; 옥현진, 2013; 윤옥한, 2015), 제한적이지만 미디어, 정보, 보건 등 새로운 영역에서 문해교육 연구 성과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성인 문해교육 연구의 담론 체계 내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주제어 수의 증가 및 주제어의 다양화, 특히 다문화, 미디어교육, 정보활용교육 중심의 연결망의 확대는 다문화사회 및 정보화사회라는 ‘문해 사태’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문해 실천’의 변화(Street, 2003, 2006)를 보여준다. 셋째, 성인 문해교육 연구의 담론 체계 내에 존재하는 주요 주제어들 사이의 역학 관계가 변하고 있다. 예컨대 ‘문식성’의 상대적으로 주변화 미디어와 관련된 주제들의 확대는 성인 문해교육 연구 담론 체계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문식성’ 담론이 쓰기와 읽기

등에 중점을 두는 국어교육학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윤준채, 2009; 이천희, 1991), 이런 현상은 성인 문해교육 연구에서 문자 중심 문해교육 연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문해 실천들 사이에 존재하는 역학관계(Barton & Hamilton, 2000)가 우리나라의 연구의 담론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성인 문해교육 관련 연구의 주요 용어들, 즉 문해, 리터러시, 문식성, 활용능력, 소양, 이해력 등의 자아중심연결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성인 문해교육 연구에서 ‘문해’의 활용도는 높지만, 평생교육학 문해 담론의 영향력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해’는 다양한 영역과 연결되어 폭넓게 쓰이고 있지만, ‘문해교육’은 지배적 위치를 점하지 못한다. 기존의 문해교육 동향 연구 등에서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고 있는 정책, 역사, 학습자, 문해교사 등의 주제는(오세정, 2015; 옥현진, 2013) 문해 중심연결망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 이는 기존의 문해교육 연구가 문해교육정책 등의 제도적 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과도 연결된다(신미식, 2010). 즉, 문자학습뿐만 아니라 문화활동, 사회 실천, 사회 변화 등을 포괄하는 문해 담론의 확장성(Freire & Macedo, 2014) 평생교육학이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해 실천을 조망할 수 있는 메타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성인 문해교육 연구의 담론 체계는 문해 실천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하위 담론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문해교육’은 ‘노인’ ‘평생교육’과, ‘리터러시’는 ‘미디어’, ‘디지털’, ‘정보’ 등과, ‘문식성’은 ‘다문화’, ‘문화교육’, ‘결혼이주여성’, ‘쓰기’ 등과 동시출현 빈도가 높았다. ‘활용능력’ 중심연결망은 ‘정보활용능력’ 중심으로, ‘소양’ 중심연결망은 ‘과학적소양’, ‘환경소양’, ‘무용소양’ 중심으로, ‘이해력’ 중심연결망은 ‘금융이해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신문해연구에서 보여주듯이(Barton & Hamilton, 2000; Duckworth & Tett, 2016; Street, 2003, 2006), 우리나라 성인 문해교육 연구의 문해 담론들이 특정한 문해 사태 및 문해 실천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하위 담론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성인 문해교육 연구 담론 체계는 여전히 분화 중인 역동적 체계이다. ‘건강문해’, ‘건강리터러시’, ‘건강문식성’ 등 동일한 영역이 서로 다른 문해 관련 용어와 연결 되어있다. ‘미디어’, ‘정보’ 등은 주요 자아중심연결망에 모두 등장하며 ‘정보활용’, ‘소양’, ‘이해력’ 등은 다른 주제어와 결합한 형태로만 등장한다. 이는 성인 문해교육 연구 담론 체계의 미분화 정도가 높으며, 향후 분화 과정에서 다양한 변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성인 문해교육 연구의 담론 지형이 전통적인 저학력 성인을 위한 문자 중심의 교육뿐만 아니라 미디어, 정보, 무용, 미술, 과학 등의 영역과 연결된 ‘하나의’ 담론 체계라는 점을, 그리고 고유한 문해 실천들과 연결되어 있는 ‘문해’, ‘리터러시’, ‘문식성’ 등을 중심으로 한 하위 담론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또한 내부적 역학관계 속에서 여전히 분화 중인 역동

적 체계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안에서 ‘문해’의 활용도는 높지만 ‘문해교육’은 제한된 영역을 점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이점들을 고려하여 성인 문해교육의 향후 연구 과제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문해교육 연구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성인 문해교육 연구에서 ‘문해’ 담론은 미디어, 다문화, 문화, 경제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문해’는 전체 담론 체계에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문해교육 연구는 여전히 문자 문해 중심의 전통 영역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문해’로 기표화된 형식·비형식교육의 영역뿐만 아니라 무형식적 ‘문해 실천’ 이루어지는 일상 영역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경제, 보건, 문화예술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해’ 담론의 확장은 ‘문해’ 현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일상 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 ‘문해’로 호명되지 않는 실천들이라고 하더라도 학습자의 세계 읽기와 쓰기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문해과정일 수 있다(Friere & Macedo, 2014). 둘째, 평생교육학적 관점에서 확장적인 문해 영역을 조망할 수 있는 메타 수준의 연구가 필요하다. ‘문해’와 의미를 공유하는 연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해 실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용어 혼재와 개념 혼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론적 조망과 분석은 전무하다. 학습사회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문해 영역의 분화와 다양성의 증가는 학교사회를 넘어 학습사회에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이다(허준, 2008). 따라서 평생교육학에서 분석해야 할 중요한 현상이다. 셋째, 저학력 성인 대상의 문해교육 연구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문해’ 담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상은 낮아졌지만, 읽기와 쓰기교육, 그리고 다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문화 수준은 높다(옥현진, 2013). 그러나 ‘문해교육’ 중심연결망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평생교육학에서 문해교육 연구의 지형은 단조롭다. 예를 들어 교육자, 교육방법, 학습방법 등 문해교육에서 핵심 주제어들이 ‘문해’ 중심연결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문해’ 중심연결망에서 다양한 영역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매개개념의 부족도 여기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문해교육 연구에 있어서 기능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적 실천으로서 문해교육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학 연구에서 문해 담론의 비확장성은 전통적인 문해교육 영역, 특히 문해교육 정책과 제도 영역에 대한 천착에 기인한 바가 크다(신미식, 2010). 자유, 평등, 인간화, 해방, 임파워먼트, 프락시스, 의식화 등 비판적문해 담론에서 중요한 개념들(Freire, 1970; Freire & Macedo, 2014)이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주제어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개념 사이의 관계망 중심의 본 연구 방법론의 한계와 문해교육 연구의 편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확장되어야 할 문해교육 연구의 방향성을 역설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 강정배(2015).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특수교육 분야 연구동향 분석: 1997~2014년.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1), 281-306.
- 곽기영(2014). **소셜네트워크분석**. 서울: 청람.
- 곽삼근·박세영(2016). 한국 성인문해교육의 전개과정과 리터러시 확장의 과제. **평생교육학연구** 22(2), 85-108.
- 곽삼근·박현우·김현주(2014). 대학평생교육 연구동향 분석: 1982~2012년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0(1), 63-92.
- 권현범·천세영(2013). 스마트교육 연구 동향 분석 : 언어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적용. **교육발전논총** 34(2), 103-125.
- 김경미·홍성호·안유정·송미경·이만형(2016). 하이테크산업 지식네트워크의 구조적·공간적 특성. **한국비교정부학보** 15(1), 185-208.
- 김상규(2008). 한,미,일 대학생들의 경제이해력 비교 연구. **경제교육연구** 15(2), 65-88.
- 김상아·강정배·변찬석(2015).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국내 학습장애 연구 동향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2), 449-471.
- 김석우·최태진(2011).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김수영(1987). 미디어리터러시교육. **교육공학연구** 3(1). 한국교육공학회, 83-113.
- 김양은(2005). 리터러시 관점에서의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 언어로서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7, 427-450.
- 김영석(2012). 성인학습자의 교육참여 및 학습동기 연구동향 분석. *Andragogy Today* 15(1), 31-62.
- 김영환·강두봉·정주훈(2015). 학습 네트워크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평생학습사회** 11(4), 25-48.
- 김진화·고영화·성수현(2007). 한국 평생교육학의 학문적 동향과 과제 -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3(4), 89-122.
- 박지영·김태호·박한우(2013).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셀러브리티의 SNS 메시지 탐구. **방송통신연구** 82, 36-74.
- 박진희·장남기(1998). 환경소양의 정의와 관련 연구에 관한 분석. **환경교육** 11(2), 83-101.
- 박한우·Leydesdorff, L.(2004).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5), 1377-1387.
- 변종임·이경아(2006). 성인 문해 정보화 교육의 전략 탐색을 위한 성과 분석 연구. **컴퓨터교**

육학회 논문지 9(5), 13-29.

- 손준중(2000). 정보사회의 문해 이해: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평생교육학연구** 6(1), 213-233.
- 신미식(2010). 하나의 담론으로서 한국 문해교육의 비판적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5, 273-294.
- 안인기(2014). 시각적 문해력 이후의 시각문화교육. **미술과 교육** 15(1), 55-74.
- 양명희(2013). 문해교육의 개념과 내용 분석 연구. **인문연구** 67, 319-348.
- 오세정(2015). 성인 문해교육 연구 동향. 한국평생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165-170. 10월 16일.
제주: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국제교류회관.
- 오혁진·허준(2011). 1950년대 '전국문맹퇴치교육'의 사회교육사적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17(4), 265-291.
- 옥현진(2013). 성인 문식성 연구 동향 분석. **작문연구** 19, 101-129.
- 유병국·김순홍(2013).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트위터의 검색네트워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5), 396-407.
- 윤옥한(2015). 평생교육 20년(1995-2014) 연구동향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학술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1(2), 1-22.
- 윤준채(2009). 문해력의 개념과 국내외 연구 경향. **새국어생활** 9(2), 5-16.
- 이수상(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이유나·김춘화·이상수(2016). '교육공동체'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언어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종합연구** 14(2), 153-185.
- 이정연·정동렬(2005).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4), 39-59.
- 이지연(2015). 학술지 분석을 통해 본 국내외 성인교육학의 최근 연구동향 고찰. *Andragogy Today* 18(2), 169-192.
- 이지혜(2003). 학습사회에서 성인문해의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9(3), 57-74.
- 이천희(1991). 문식성의 개념 고찰. **초등국어교육** 1, 105-131.
- 정승환·호예담·송영수(2014). 핵심어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한 국내 HRD 연구 동향 탐색. **HRD연구** 16(3), 1-33.
- 채향순(2015). 무용교육의 가치 제고에 있어 댄스 리터러시 개념의 함의.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3(5), 163-181.
- 최상운(2011).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극단 공동참여 연결망의 동태적 변화 분석: 극단 연우무대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4, 43-84.
- 최윤정(2003). 무학력자의 성인문해학습과정에 관한 생애사적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은수·김성길·허영숙·박진홍(2009). 한국성인교육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Andragogy Today* 12(4), 167-183.
- 평생교육법, 법률 제14160호 (2007).
- 한승희(1997). 성인문해의 문화담론적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3(1), 1-36.
- 허 준(2008). 학습사회론에 비추어 본 문해교육 법제화의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14(4), 57-81.
- 현영섭(2011). 사회적 네트워크 관련 HRD 및 평생교육 연구동향: 개념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HRD 연구* 13(4), 1-29.
- Bartlett, L.(2008). Literacy's verb: Exploring what literacy is and what literacy do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28, 737-753.
- Barton, D. & Hamilton, M.(2000). Literacy practices. in D. Barton, M. Hamilton & R. Ivanič(Eds.) *Situated literacies*(pp. 7-15). London & New York: Routledge.
- Capstick, T.(2016, September). *Literacy, power and migration: combining New Literacy Studies with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o explore transnational migration from Pakistan to the UK*. Paper at the 8th Triennial Conference of European Society of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Adults, Maynooth University, Dublin.
- DeJordy, R. & Halgin, D.(2008). Introduction to Ego Network Analysis. Boston College and the Winston Center for Leadership and Ethics, Academy of Management PDW. Retrieved September 20, 2016, from <http://www.analytictech.com/e-net/pdwhandout.pdf>
- Duckworth, V. & Tett, L.(2016, September). *Shifting the instrumental literacy lens to a transformative and emancipatory model that empowers learners and their communities*. Paper at the 8th Triennial Conference of European Society of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Adults, Maynooth University, Dublin.
- Euringer, C. K., Buddeberg & Grotlüschen, A.(2016, September). *German adult literacy survey 2017/18: concepts and methodological approach*. Paper at the 8th Triennial Conference of European Society of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Adults, Maynooth University, Dublin.
- Freire, P. & Macedo, D.(2014). *문해교육: 파울로 프레이리의 글 읽기와 세계 읽기* (허준 역). 서울: 학이시습(원서출판 1987).
- Freire, P.(1970). *Cultural action for freedom*. Cambridge: Harvard Education Publishing Group.
- Krippendorff, K.(2004).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OECD(2013). *The survey of adult skills: reader's companion*. Paris: Author.
- Okta, H., Balkir, A., Foster, S. I. & Jensen, D.(2011, Setember). Distance estimation with MapReduce for large networks. *Proceedings of the Workshop on Information in Networks*, NY.
- Sholle, D. & Denski, S.(1993). Reading and writing the media :critical media literacy and postmodernism, in C. Lankshear & P. L. MacLaren (Eds.) *Critical literacy politics, praxis and the postmodern*(pp. 297-322).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treet, B.(2003). What's "new" in New Literacy Studies?: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cy in theory and practice. *Current Issues in Comparative Education*, 5(2), 77-91.
- _____ (2006). Autonomous and ideological models of literacy: Approaches from New Literacy Studies. *Media Anthropology Network*, 17, 1-15.
- UNESCO(2003). *Literacy: a UNESCO perspective*. Paris: Author.
- Wasserman, S. & Faust, K.(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Structur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1st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논문 접수 2016. 10. 31 / 수정본 접수 12. 15 / 게재 승인 12. 23
- 허 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평생교육 전공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현재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관심 분야는 문해교육, 공동체학습, 사회운동 등임.
- 이경민: 영남대학교에서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같은 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임. 주요 관심 분야는 문해교육, 여성교육, 학습공동체 등임.
- 이진희: 영남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현재 영남대학교 교육학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임. 주요 관심 분야는 대학평생교육, 성인학습자, 평생교육기관 등임.

Abstract

The Discourse Configuration of Adult Literacy Education Studies

Heo, Joon(Yeungnam University)

Lee, Gyeongmin(Yeungnam University)

Lee, Jinhee(Yeungnam University)

Literacy is not an exclusive topic of lifelong education studies but a social, historical and cultural concep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hich has been conducted with this critique in mind, is to analyse the discourse configuration of adult literacy education studies with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on key words in related articles published in the academic journals of South Korea. To do this, we collected 167 key words from 300 articles registered in four academic information sites and analyzed the whole network structure, the change in time, and ego-centered networks of main terms related to literacy. We then discussed as follows. First, the discourse configuration of adult literacy studies forms a complex discourse system associated with a variety of literacy practices. Second, this system has sub-systems connected with their own specific literacy practices. Third, this system is also a dynamic discourse system still evolving in the dynamics among related discourses. On the basis of these discussions, we proposed to extend the research area, to conduct meta-level research, to deepen existing studies, and to expand interests in critical discourse to challenge adult literacy education studies from a lifelong education perspective.

* Key words: literacy, adult literacy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semantic network analysis